

‘목포·무안권 개발’ 24일 발표

균형위, 盧대통령에 보고후 공표할 듯

28일 목포 방문 설명키로

정부가 무안·목포권을 물류거점과 신산업기지,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일명 무안·목포성장계획)의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 (관련기사 3면)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위원장 성경통)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정과제 회의인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보고회’에서 균형위가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 내용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만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을 추진해온 청와대 비서관과 재경부·행차부 등 9개 관련 부처 장관 및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서삼석 무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해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보고와 토론을 통해 그동안 구상된 사업을 논의한다.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속에 청와대 비서관이 주도해왔으며, 이 사업을 추진할 기획단 설치 관련 사항은 균형위가 주관토록 임무가 분담돼 이날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국정과제로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지난 7월 최초 마련된 ▲서남권 발전의 필요성 ▲기본계획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투자 규모 및 향후 추진방안 등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 기본안을 바탕으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은 무안·목포

권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조성(J프로젝트) 사업지구인 영암·해남을 포함하는 기존의 ‘S프로젝트’에서 무안·목포를 단일 사업권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 이어 균형위 고위 관계자가 오는 28일 목포를 방문,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을 비롯한 지역혁신 역량 성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균형위의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에 대한 현지 설명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사업 예정지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점 등을 지시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업 자체를 추진하라고 독려하는 등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현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10미터 파이프 오르간 임동성당서 ‘장엄미사’

성당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웅장한 제단, 아름다운 성화(聖畵)와 함께 경건함을 전해주는 정통 파이프 오르간이 광주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광주 임동성당에 설치된 높이 10m, 폭 6.5m 의 파이프 오르간은 4mm부터 6m 파이프까지 모두 2천여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7만여개의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은 제작·설치비만 5억 5천만원 이 소요됐다.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임동성당의 정통 파이프 오르간은 높이 10m, 폭 6.5m 규모로 모두 5억 5천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파이프 오르간이 임동성당에 들어서게 된 사연은 광주대학교 김희중(59) 주교와 관계가 있다.
‘예향 광주’라고 말하지만 파이프 오르간 하나 없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김 주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목포 복교동 성당을 함께 다니던 친구 오

5억5천만원 들여 광주 첫 설치

김 주교 서울 삼기 음악학원(장)씨에게 임버처럼 “광주에도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교에서도 당원 됐으면 좋겠다”는 우스갯 소리로 함께 전하면서, 친구의 ‘꿈’을 늘 들던 오 씨는 3년 전 김 주교의 서훈식 때 3억원을 내놓았고 광주대학교가 2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아 1년여만에 설치를 완료했다.
파이프 오르간은 규모가 워낙 커서 보통 건물 설계 당시부터 기획한

다. 임동성당도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다.
특히 이 파이프 오르간은 외국에서 수입해 설치하던 데서 벗어나 국내 최고의 오르간 마스터인 홍성준 씨가 제작한 ‘한국형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
김 주교는 “예향 광주의 위상도 높이고 신도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기를 전하기 위해 오르간을 마련했다”며 “천주교의 소유가 아닌, 지역 사회 모두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평화방송은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임동성당에서 신도와 광주 시민들을 초청, ‘파이프 오르간 첫 나들이’라는 주제로 첫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해외시장 개척활동 계약실적 급급

수출 성사는 5분의 1 불과

전남도와 광주시가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역교류단 파견과 바이어 초청 상담회,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들 행사에서 이뤄진 수출 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해외시장 수출계약 대비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0여차례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1억4천473만6천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올 상반기까지 실제 수출액은 3천84만5천달러에 그쳐 성사율은 21.3%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모두 5차례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나서 총 2천90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한 해 동안 실제 수출액은 844만 달러로 29%에 그쳤다.

전남도의 경우 시장개척 활동별로는 7차례에 걸친 무역교류단 파견을 통해 모두 9천787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수출액은 1천189만5천달러로 계약 체결액의 12.2%에 그쳤다. 국제박람회에는 24차례나 참가해 1천418만2천달러의 수출계약을 올렸지만 수출액은 146만5천달러로 성사율은 불과 10.3%에 머물렀다.
그나마 9차례의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는 3천268만4천달러의 계약에 1천748만5천달러를 수출해 성사율이 53.5%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출 계약의 성사율이 낮은 것은 행사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실제 수출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계약부터 맺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출을 성사시키려면 수년에 걸쳐 10차례 이상 접촉이 이뤄져야 하며 계약 이후 물량과 포장, 선적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2~3년이 지나면 수출 성사율이 크게 오르게 되며 20%대 성사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40여차례에 걸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에 5억6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국 인구 5천만명 못 넘는다

저출산·고령화 심화...2018년 4,934만명 정점 감소 전남지역 2030년까지 인구 30%이상 줄어든 듯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고령화 기조의 심화 등으로 인해 5천만명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남지역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줄어드는 등 지역 내 인구구조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오는 2018년 4천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2030년 4천863만5천명, 2050년 4천234만3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상이 노인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

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2030년 인구가 각각 147만명, 125만명으로 추산됐다. 광주는 2006년 144만명에서 25년간 3만명(2%)이 늘어나는데 그쳐 사실상 인구 정체상태에 접어들었다. 전남은 2006년 182만명에서 25년새 무려 57만명(31%) 줄어들면서 2019년께 광주에 추월당하는 등 인구감소

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점 시기가 계속 빨라지는 것은 출산, 사망, 이동 등 여러 요인 가운데서도 출산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대 시학과 총동창회
 ■ 일 시 : 2006년 11월 25일(토) 오후 5시
 ■ 장 소 : 광주상록회관 4층 연회장
 ■ 연락처 : 011-613-4624

100년의 사랑 - 부캐표
동화약점

부캐표가 없는 것은 할명수가 아닙니다.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까스활명수같은 남자!

정규 사무직 사원 모집

직종	지역	▶세출서류 : 이력서(신부적) 및 자기소개서, 고교 생활기록부 각 1부
사 무	상경계열 그룹 이상자	▶채용기간 : 2006.11.28(화)
	29세 이하(자녀 병역필 또는 면제지)	▶채 출 처 : 서울시 중구 순화동 5번길 동화인문공동체(주) 인사부 ☎ 02-773-0467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한글, MS OFFICE)	▶기 타 : 4대보험 적용, 상여금 95%

동화약점(주) 광주지점

김동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캐표 까스활명수** 쿨